



결제에서 대출로, 인도 핀테크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한다

인도에서 디지털 대출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새로운 디지털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며 파이를 키워가고 있다.

글 Arjun Yadav 사진 Getty Im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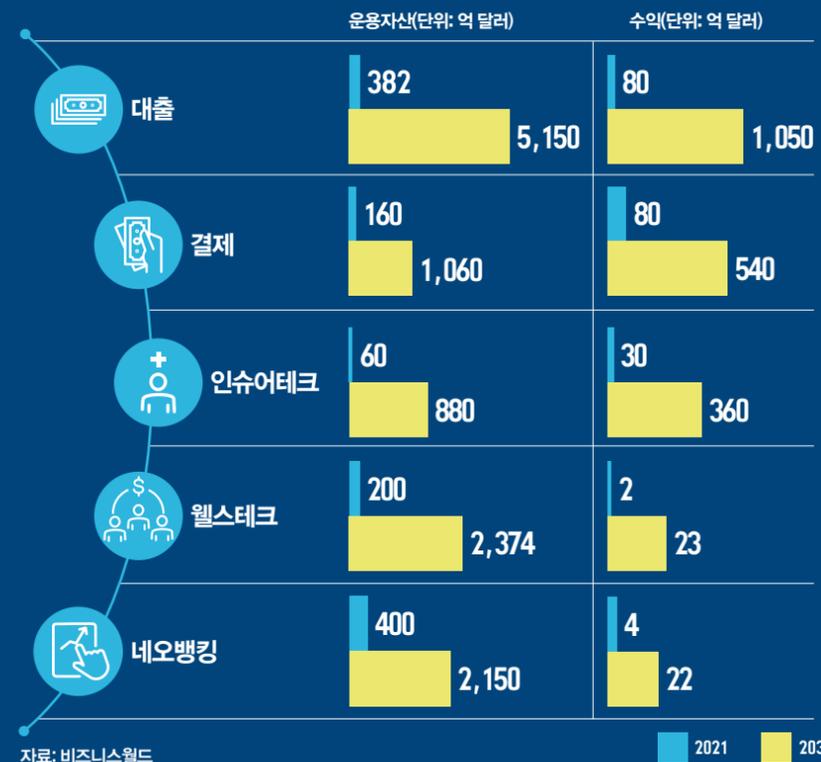
지금까지 인도의 핀테크 혁명을 '결제' 부문이 이끌었다면, 앞으로 2030년까지는 디지털 '대출'이 핵심 부문이 될 것이다. 인도의 핀테크 기업은 소비자 및 중소기업 양측 모두를 타겟으로 다양한 대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인도의 디지털 대출이 가파른 성장을 보이는 데에는 높아진 금융 포용성이 그 직접적인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가 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은 영업점의 물리적 위치나 이용시간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앱을 통해 금

리와 한도 등 나에게 가장 유리한 최적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인도에서는 소매업체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인도의 대출액 증가를 리스크 요인으로 보기도 하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⑤

인도 핀테크 분야별 시장 전망, 2021년 vs 2030년



인도, 미국, 중국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

인도에서는 6개 중 1개 중소기업만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단위: 만)
인도: 6,300 | 미국: 3,300 | 중국: 4,400

중소기업의 대출 이용 비율
인도: 16% | 미국: 50% | 중국: 37%

GDP 기여도
인도: 30% | 미국: 44% | 중국: 60%

고용인 수(단위: 억)
인도: 1.1 | 미국: 0.6 | 중국: 3.75

대출 총액
인도: \$3,470억 | 미국: \$1.4조 | 중국: \$6조

인도 디지털 소액 대출 상품

서비스	상세 내용	서비스 제공 회사
즉시 현금 대출 (Instant Cash Loans)	대출자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소액 무담보 개인 대출	머니탭 (MONEYTap) 엠포켓 (mPokket) 페이센스 (PaySense) 얼리샬러리 (EarlySalary)
선구매 후결제 (Buy Now Pay Later)	정식 대출이 아닌 전자 상거래용 신용 선결제 시스템	레이지페이 (LAZYPAY) 이페이레이터 (ePayLater) 심플 (Simpl) 제스트 (zest) 슬라이스 (Slice)
카드 없는 EMI (Cardless EMI)	전자 상거래용 정기 할부 포함, 정식 대출로 구성되는 신용기한 연장	얼리샬러리 (EarlySalary) 인스타크레드 (Instacred)
EMI 카드 (EMI Card)	사전에 승인된 신용 한도 및 EMI에 대한 회수 일정이 정해진 신용카드	캐쉬이 (CASHe)
P2P 대출 (Peer To Peer Lending)	개인과 개인 간 대출 거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바라트페 (BharatPe) 루피서클 (Rupeecircle) 파이사두칸 (PaisaDukan) 렌덴클럽 (LenDen Club)

자료: Chiratae Ventures-EY FinTech Report, Reserve Bank of India, People's Bank of China,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